

## 서울대학교 충렬탑 건립의 필요성을 제언 합니다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명예교수 신 동 소

서울대학교는 겨레의 대학으로 나라와 인류에 공헌할 사람을 기르는 학문의 전당으로 설립되어 대한민국 건국 61주년의 역사와 진운을 함께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목매 간에도 잊지 못할 6·25전쟁과 4·19민주화 사건 등 아픔으로 점철된 역사가 투영되어 있습니다. 지난 역사에 있어서 6·25전쟁은 슬한 사람들의 살상, 국토의 폐허화, 이산가족 특히 대학연구실의 기능마비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참상과 막대한 손실을 안겨준 민족의 비극을 낳아 국가의 큰 변란이나 정변도 아닌 국가주권의 운명이 걸렸던 민족사적 큰 사건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고 휴전상태로 항상 위험이 오늘날에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서 대학의 지성인은 조국의 부름에 응했고 불의와도 싸웠으며 슬한 인고를 겪으면서 국익과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 졸업생들은 정치, 재계, 교육계, 재야 등 여러 분야에서 공헌하고 혁혁한 공적을 쌓아 오늘날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국군과 UN군이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사수한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룩된 것이며 그 가운데 서울대학생의 희생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2010년이면 6·25전쟁이 일어난 지 6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1948년 제주 4·3사건과 1980년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위령탑과 보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풍전등화에 처했을 때 목숨을 바친 서울대학생 전몰자의 조국애를 기리는 위령탑을 대학 차원에서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서울대학생으로서 참전하여 유명을 달리한 전몰자를 위한 충렬탑 건립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휴교를 내려 여러 가지 사연으로 나라의 부름에 응하여, 사랑하는 제자와 동문이 전쟁터에서 유명을 달리한 전몰자를 기리는 위령탑이 건립되어야 합니다. 이 영령들은 부모와 귀한 처자식을 두고 대한민국의 국군으로, 이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용감하게 싸우다가 숨을 거두었던 동문들이었는데, 이제는 국군묘지에 또는 이름 모를 산야에 묻혀있는 영령들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사회에 이념의 대립과 민주화의 기치아래 진정 나라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친 영령들의 희생정신을 망각하였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젊은 세대는 6.25를 모른다는데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앞서간 영령들을 위한 충렬탑 건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들 영령들을

기리는 충렬탑을 서울대학교에 세우는 것은 우리 동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이것은 곧 지식위주 교육보다 참된 정신을 갖자는 인간교육의 일환입니다.

진정으로 그 당시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젊은 죽음, 절박한 생사의 갈림길에서, 나라가 위태로울 때 목숨을 바치는 이가 마땅히 성인인 것처럼, 건위수명의 정신으로 한 번 잃은 조국은 다시 오지 않으리라는 신념에서 이순신 장군과 케사르 무장과 같이 조국을 사랑하고 나라를 지켜낸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평화와 번영이 가능했습니다.

이 영령들은 조국을 사수하기 위해 전선에서 겨울에는 혹독한 추위와 여름엔 찌는 무더위를 견뎌 밤낮으로 싸우다가 조국의 군복을 입은 채 이름 모를 산골짜기에서 행복해질 조국을 기다리면서 하나뿐인 목숨을 바친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이들의 젊은 죽음은 어여뻐 사랑한 애인과 혈육을 나눈 형제와 부모를 두고, 청운의 꿈을 접은 이들의 희생을 무엇으로 보상하여야 되겠습니까. 모교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원혼을 달래줘야 하겠습니다.

본교는 거래의 대학으로 진정 6·25전쟁에 참전한 졸업생을 위한 충렬탑의 건립은 재학생들에게 애국심을 승화하고 조국애의 동기를 유발할 상징물이며, 그 자체가 무언의 교육으로 대학이 수행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든 교육이념은 자국을 사랑하는 정신을 함양하는 데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이념의 갈등과 가치관의 혼돈에 빠져있는 듯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6·25전쟁의 포화가 멈춘지도 60주년이 다가오며 오늘날 청소년과 대학생들은 역사적인 비극을 왜곡하고 우리 동족들이 겪었던 희생의 아픔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현재와 미래의 주역입니다. 우리 역사에 있어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데 원동력이 된 세속오계의 임전무퇴 정신은 현재에도 국가 발전의 정신적 갑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를 바로 가르쳐줌으로써 올바른 역사를 알고 참된 인간이 되도록 교육하여야 합니다.

6·25전쟁은 잊혀진 전쟁일 수 없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상봉하는 생생한 현실입니다.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잊는 민족에게는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 된다'는 경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문들이 자유 민주주의의 수호와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적을 기리는 충렬탑을 세워야 한다는 것은 우리 후세들에게 부과된 몫이며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평화와 번영을 이룩한 것은 6·25전쟁에서 침략을 방어하였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있으며 나라를 구한 국군장병 아니 장하고 훌륭하였던 서울대학교 전몰자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상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국을 너무나 사랑한 미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는 1922년 평양에서 미국인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 평양을 심지어 고향이라고 불렀으며, 하버드대학 박사과정을 밟던 중 6·25전쟁이 터지자 "내 조국에서 전쟁이 났는데 이렇게 마음 편하게

공부만하겠습니까. 내 조국에 평화가 온 다음에 공부해도 늦지 않아요.”란 감동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서울 탈환작전에 나서 1950년 9월 22일 녹번동에서 인민군 매복조와 교전을 벌이다가 가족을 두고 전사했다는 공헌으로 ‘녹번동광장’에 기리 남을 추모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한편 우리들에게 감동을 준 것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왼쪽다리를 잃은 터키인 압둘카다브산이 55년만에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면 남은 한쪽 다리까지 기꺼이 바칠 각오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들에게 생생한 애국심을 새삼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외국인이 한국 사랑을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자신은 자괴한 마음과 맹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달려 있으므로 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교육자의 역할과 사명입니다. 우리가 6·25전쟁이 일어나 조국의 부름에 참전 동문의 용기와 애국심을 다시 상기하기 위해 충렬탑을 세우는 것은 바로 정신 교육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버드대학 한복판 메모리얼 처치의 벽면과 프린스턴대학 낫소 홀, 예일대학에 전몰동문 명단을 일일이 새겨놓았습니다. 미국 워싱턴 시내에 있는 한국전쟁기념 공원에 ‘알지도 못한 나라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켜달라는 부름에 응한 미국의 아들딸에게 경의를 표하며’ 그리고 그 아래에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불멸의 명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민족의 대학인 서울대학교에 충렬탑을 세워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글귀 보다 더욱 강렬한 감동적인 격문을 새겨야만 합니다. 서울대학교에 충렬탑을 세우는 것은 서울대학교 전몰자의 조국수호의 용맹스러운 함성을 들리게 하는 진원지가 되며 후배들에게 애국심을 우리나라에 하는 무언의 상징물이 되며 대학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됩니다.

충렬탑은 애국의 혼을 담고 있는 숭고한 희생정신의 상징이 되며 부국강병의 귀감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앞서간 본교 전몰자의 희생정신과 재학생에게는 모름지기 애국심을 우리나라에 하는 가교가 됩니다.

서울대학교는 민족의 대학입니다. 민족의 대학은 나라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대학이며 조국수호의 간성을 배출하는 전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충렬탑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3월